

샬롬! 이성구/이미라 선교사 탄자니아에서 우리 뽀엘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도님들 다들 평안 하셨는지요?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지 벌써 석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끊기고 집들이 무너지는등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건기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1 월달 까지 비가 안오니 물이 아주 귀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엔다시쿠라는 마을은 비가 안오면 마실물도 없어지기에 그동안 모아둔 빗물을 아껴먹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실텐데 여러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방문을 위해 지금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도 보수하고, 벽과 바닥에 새 페인트칠을 칠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긴 하였으나 안되는 날이 더 많고, 전기는 있으나 불나방들이 몰려와서 밤에는 불을 켤수가 없으니 전기가 유명무실합니다. π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볼수 있지요.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과, 저녁 노을같은 Breathtaking view 를 즐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들판에 나가 돌을 때려 치는 골프도 즐길수 있어요. ㅋㅋ 이래저래 평생 잊지못할 추억들을 많이 담아가실수 있습니다.

이곳 교회들은 잘 자라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제자들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마다 각자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교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제자들 스스로 할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땅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왔지만 이곳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마마코나 마을에는 학교도 없어서 어린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들이 어릴때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는 도망쳐버려서 할머니집에서 자랍니다. 딸이 8 명이 있으면 8 명 모두 아이들 낳고

도망치면 할머니가 8 명의 손주를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신은 그냥 전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삶은 그냥 무지 자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것은 희망이 없다는것 일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있는것, 우리가 줄수 있는것을 아이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 해줄수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과 소망의 씨를 그들 마음에 심어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빵 만으로는 희망을 줄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못하는 아이들, 부패한것들만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것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두번, 토요일과 주일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모링가" 라는 자연 비타민과 여러가지 콩들을 섞어 만든 영양이 풍부한 죽과 빵을 먹이고, 주일에도 예배후 음식을 주어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에서 저희부부가 15 년을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온 지금 깨달은것은 이들의 문제가 가난해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대를 이어 간다는것입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정직하다면 희망이 있는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망이 보일것입니다. 우리는 몇명의 아이들에게라도 희망의 씨가 심어진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큰 바위에 계란을 내려 치는 느낌이 들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저희들의 영과육이 더욱 강건하여 저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역들이 지속될수 있도록 다른 동역자들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이땅에 어린이들이 이 나라에 희망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씨가 뿌려져서 앞으로 이땅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3. 때를 얻던 못 얻던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